



마음을 비추는 거울로 환자를 치료하는 마법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의료사회사업팀

한해 10억원 외부자금 유치해 희망선물하고 수백여명의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왼쪽부터 : 전승룡, 이신애, 한수정 의료사회복지사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과 나눔의 실천, 사회공헌 활동 눈부서

흰 가운을 입고 온화한 미소로 병원 곳곳을 누비는 삼총사가 있다. 전승룡, 한수정, 이신애 이들 모두는 의사, 약사, 간호사, 검사자도 아닌 의료사회복지사이다. 일반인들은 생소하기까지 한 의료사회사업은 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진료팀의 일원이 되어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에 지장을 주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환자와 그 가족을 돕는 전문 분야 중 하나이다.

환자의 효과적이고 완전한 치료를 위해 신체적인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문제도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시작된 의료사회사업은 질병의 원인이 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방해하는 환자의 심리적, 사회적 및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돕고 퇴원 이후에도 빠른 시일 안에 정상적인 사회기능을 하도록 환자와 그의 가족을 돕고 있다. 이렇게 병원을 동분서주하며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고려대 안암병원 의료사회사업팀을 들여다봤다.

저희가 눈코 뜰새 없는 이유... 아세요?

“국가에 사회복지제도 왜 필요한가요?”

“병원에 의료사회사업은 왜 필요한가요?” 에 대한 질문에 전승룡 의료사회복지사가 던진 반문이다.

“모든 환자와 그의 가족들의 마음을 살피고 돌봄으로써 효과적이고 완전한 치료를 도와 그들의 건강은 물론 평온과 안정을 주는 것이 바로 저희가 있는 이유” 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의료사회사업팀이 맡고 있는 업무 분야 및 활동 영역이 매우 다양하고 넓다. 일반환자를 비롯한 미혼모, 입양, 가정폭력, 정신과 환자, 장기이식 환자, AIDS 환자, 호스피스 환자 등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심리상담을 비롯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자선기금 및 기부금 유치,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원활동, 병원 내 자원봉사를 비롯한 대내외 의료봉사활동 등 그야말로 눈코 뜰새가 없다.

한달 300여건의 상담, 타병원 벤치마킹 대상 될 정도

안암병원 내 의료사회사업 분야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고작 4년밖에 되지 않는다. 2004년 고객센터팀의 한 일원으로 시작된 의료사회사업은 병원 내 인식도 낮을 뿐더러 이렇다 할 역할을 수행하기엔 너무 열악한 환경. 하지만 수년 동안 내부 구성원들의 인식을 바꾸면서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이들의 땀과 노력이 만들어 낸 성과들은 가히 눈부시다. 한 달 평균 상담건수가 300여건에 이르고, 수 백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병원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호스피스 활동을 비롯해 지역사회는 물론 국내외 의료봉사활동으로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이들이 지난해 유치한 외부 자선기금만 1,144,091,273원으로 이 기금으로 총 345명에 희망을 선사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의료사회사업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참여해 국내 의료사회사업분야 발전을 선도하고 있기도 하다. 짧은 시간 내 이룬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들로 인해 타병원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위상과 입지가 많이 높아졌다.

전승룡 의료사회복지사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병원의 위상에 비해 의료사회사업분야가 턱없이 열악했었다. 하지만 병원 구성원들이 의료사회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은 다름 아닌 도움을 드린 환자분들이 건강하게 병원을 나설 때,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플 때는 환자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라고 한결같이 말할 만큼 환자의 희노애락을 함께 한다. 한수정 의료사회복지사는 “퇴원 이후에도 병원 근처에 들르실 때면 으레 저희 팀에 오셔서 감사인사를 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갈수록 가족이 하나들 늘어가는 느낌이다” 면서, “하지만 노력한 만큼 지원이 안 이루어지거나, 돕고 있던 환자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한동안 명해질 만큼 가슴이 아프다” 라고 말한다.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묻는 질문에 의료사회복지사 모두 강한 사명감과 함께 욕심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좀 더 세심하게 환자분들에게 신경쓰고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뿐이다” 면서, “인적/물적 역량을 더욱 강화해 지금의 활동분야를 점진적으로 넓혀감은 물론 질환별로 지원 및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Contents



2p

스페셜 리포트2
첨단과학,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재탄생



3p

특 집
사이버 연수원 오픈



5p

친절리더 칼럼
15초 안에 환자를 감동시켜라



6p

동호회 탐방
움직이는 동호회 행복경영을 담다



7p

의학정보
보리밭과 다이어트

실명위험 망막질환 늘어

항체주사로 신생혈관 치료에 새 장 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8년 망막질환으로 치료 받은 환자 수는 57만5869명으로 2004년보다 67% 증가했다. 망막질환 증가의 원인으로는 노인인구와 당뇨병 환자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대표적인 망막 질환은 '당뇨망막병증'과 '황반변성'이 있다. 당뇨병이 진행되면 몸에서 가장 미세한 혈관이 분포되어 있는 눈 중에서도 망막에

합병증이 발생한다. 당뇨망막병증은 망막의 혈관이 터져 혈액과 체액이 흘러나오면 혈관 주변 세포에 부종이 생기는 것으로, 심해지면 유리체에 출혈이 생기거나 시력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황반에 부종이 생겨 시력이 떨어지고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다. 또 다른 망막질환인 황반변성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로, 50대부터 그 발생률이 증가한다. 가벼운 황반변성은 부분적인 시력 저하만을 초래하지만 심해지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황반변성의 원인으로는 노화 외에 유전적 원인과 자외선, 심한 근시, 흡연, 기름진 음식의 과도한 섭취 등도 꼽힌다.

치료로는 당뇨망막병증에는 황반부종과 신생혈관을 억제시키기 위해 국소 및 범망막레이저치료(광응고술)를 시행한다. 신생혈관에 의한 유리체 출혈이나 망막박리 등이 생기면 수술(유리체절제술)을 하게 된다. 황반변성의 치료로 최근 가장 주목받는 치료법은 혈관내피증식인자 항체주사(anti-VEGF)다. 신생혈관에 영양을 공급하는 '성장인자'(VEGF)에 대항하는 항체를 눈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이다. 이는 이미 만

들어진 신생혈관뿐 아니라 신생혈관이 앞으로 더 생기는 것을 막게 되어, 당뇨병성 망막증, 황반변성, 정맥폐쇄증 등의 치료에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시술 방법은 안약을 눈에 넣어 마취(점안마취)한 뒤 주사기로 눈을 찔러 유리체 안에 항체를 주입한다. 시술 시간은 5분쯤이며,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요즘은 항체주사와 또 다른 황반변성의 치료방법인 광역학 치료법(PDT: Photodynamic therapy)을 병행하여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 광역학치료법은 눈으로 보이는 신생혈관은 제거할 수 있지만 상태에 따라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광역학 치료법 만으로는 완치에 어려움이 있다. 항체주사의 경우 한 번의 시술로 완치하기는 힘들다. 시술 후 상태에 따라 4~6주 간격으로 재시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치료가 안되는 병으로 알려져 왔던 황반변성의 치료에도 희망의 새 장을 열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도움말 | 안과 김수연 교수
외래 | (02) 920-5520

첨단과학,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재 탄생하다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의 비약적인 발전은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동시에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리섬유의 발명으로 획기적 전환점을 맞은 내시경은 이후 지속적으로 첨단과학을 수용해 현대의학에 없어서는 안 될 의료장비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로봇공학의 발달은 매우 미세한 손떨림까지 없앤 로봇수술의 개발로 이어져 고려대 안암병원을 비롯한 주요 병원에서 활발히 시행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안암병원에 도입된 첨단의료장비를 살펴보고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로봇수술장비 (da Vinci)



세계가 주목하는 로봇수술센터

세계적으로 외과수술의 트렌드는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상처로 미세한 도구를 조작해 사람 몸속을 들여다보며 수술할 수 있나?' 라는 '최소침습수술'로 집약되고 있다. 이미 이러한 경향의 최전방에 복강경 수술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 분야에 있어 고대 안암병원은 세계적 수준의 의료진과 전문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똑같은 도구, 연장이라 하더라도 사용하는 사람의 숙달도와 노하우에 따라 그 효과가 극대화되었듯이 2007년 7월에 도입된 로봇수술은 개복수술, 복강경 수술 등 이전단계의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의료진에게 신기술이 접목되었을 때 그 효과가 배가된다. 이 점에서 로봇수술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전립선암부터 직장암, 대장암, 방광암, 갑상선암, 위암, 부인암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로봇공학의 발전과 그 술기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단 암 치료 장비이다. 이 선형가속기는 120개의 다엽콜리메이터(multi-leaf collimator, MLC), 실시간 환자검증시스템인 전자포탈영상장치(Portal Vision), 정위적방사선수술을 위한 미세다엽콜리메이터(m3 MLC) 및 호흡운동 획득 장치(Vision RT) 등이 장착돼 고도의 정확도와 정밀성이 요구되는 3차원입체조형방사선치료(3DCRT), 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 영상유도방사선치료(IGRT) 및 정위적방사선수술(SRS) 등이 가능하다. 뇌 뿐만 아니라 폐, 전립선, 췌장 등 모든 신체 부위는 다 치료할 수 있고, 워낙 대장처럼 호흡에 따라 움직이는 장기 및 전이암 치료도 가능하다.

■ MRI 3.0T



3차원 입체영상과 높은 해상도 제공

MRI 3.0T는 현재 국내 병원의 80% 이상이 쓰고 있는 기존 1.5 테슬라(Tesla)의 2배 자장인 3.0 테슬라 장비로 더욱 정밀하고 빠른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3차원 입체영상(3D)과 높은 해상도의 영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뇌·혈관·심장질환 등의 정밀 진단에 도움이 되며, 한 번의 검사로 전신의 전이된 암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암 환자 진단에 있어 진료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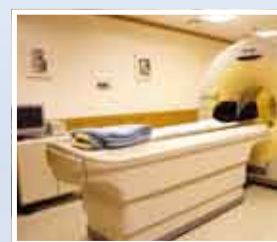
■ 토모테라피 (TomoTherapy)



환자맞춤형 선진 암치료시스템 구축

안암병원은 국내 최고 사양의 방사선 암치료기 토모테라피를 도입해 암치료의 새로운 전기를 열었다. 모든 암 치료가 가능한 토모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안암병원은 지난해 도입한 첨단 암치료기 리니악과 더불어 본격적인 첨단 암치료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이번에 도입한 토모테라피 암 치료기는 신개념의 방사선 치료방법으로 실시간 관찰되는 CT 영상을 토대로 정밀한 방사선 조사를 통해 암을 제거하는 첨단 의료장비이다.

■ PET-CT



암과 난치성 질환진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안암병원은 2006년부터 암과 난치성 질환 진단에 탁월한 PET-CT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간 바 있다. PET-CT(Philips-ADAC, GEMINI·사진)는 양전자 단층촬영기(PET)과 단층컴퓨터 촬영기(CT)를 결합한 최첨단 진단장비로 악성종양·뇌신경 및 심장질환 등에 대한 고화질 영상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다. 또한, PET는 CT나 MRI에 비해 해상력이 떨어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PET에 CT를 결합한 것으로, PET영상과 CT영상을 동시에 촬영한 후 판독함으로써 병변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 선형가속기 (리니악_Linear Accelerator)

암진단에서 치료까지 원스톱시스템 구축으로 치료 성과 극대화

안암병원은 최신형 암 치료기인 선형가속기(iX, Varian)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장비는 3차원 입체영상과 고에너지의 방사선만을 이용해 몸 안에 있는 암세포만을 추적 제거하는 최첨

『고려대학교 의료원 사이버연수원』 오픈!!



의료원은 열공중 ^^

현대사회는 학교를 졸업하면서 '학습' 이 끝나는 시대를 벗어나 직장에 입사하고도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 자기개발을 해야만 본인과 직장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평생학습시대를 맞이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어 우리 고려대학교의료원도 교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개개인의 폭넓은 교육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사이버연수원을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연수원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본인이 원하는 강의를 듣고 공부할 수 있는 e-러닝 시스템으로, 우리 고대의료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 5,000 여명 모두가 자유롭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며, 강의로 또한 전액 무료다. 현재, 리더십·코칭·재테크·커뮤니케이션 등의 강좌로 구성된 '경영일반' 분야가 18과목, 회계와 국제전문가 강좌로 구성된 '직무능력' 분야가 12과목, 그리고 교직원들의 수강신청이 가장 많은 '외국어' 분야가 78과목, O.A 실무와 자격증취득 등에 도움이 되는 '정보기술' 분야가 17개 과목,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을 위한 의료직무기본과정 2과목. 이렇게 총 127개 과목이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다.

24시간 쉬지 않고 빠르게 돌아가는 병원에서 일하다보면 학습에 대한 의지는 있어도 육체적 피곤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자기개발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막상 본인 스스로 자기에게 맞는 학습방법과 교재, 학원 등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사이버연수원의 개설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의료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꾸준한 학습의 효과를 통해 교직원 개개인의 능력향상을 가져와, 결국엔 고대의료원 전체의 발전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다.

강의신청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원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참여로 수강신청 일주일동안 무려 2천여 강좌가 신청되었고, 현재 성공적으로 사이버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연수원에서의 학습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학습 패턴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온라인강의의 장점이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장점은 동시에 가장 큰 실패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제한된 시간의 막바지에 벼락치기로 학습을 마무리하는 이른바 '클릭학습' 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강의는 분명한 목표와 더불어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학습 노력이 필수다. 사이버연수원이 어제와 다른 오늘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교직원의 희망의 이유가 되고, 평생학습시대에 멋진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고대가족의 든든한 도우미가 되기를 기대한다.

글 | 교육수련팀 박성훈
문 | 의료원 교육수련팀
(02) 920-6529

이부서 이사람

좋아서 그린 그림, 떼어 놓을 수 없는 친구됐죠! 한국화 명인(名人), 안암골 방사선사를 소개합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영상의학과 김현태 부팀장(50)은 대학에서 방사선학을 전공한 후 고려대병원 방사선과에서 1983년부터 근무했다. 매일 X-레이를 찍던 그였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원내에 포스터를 만드는 일등을 익숙하게 해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지난 2002년 갑자기 붓을 잡기 시작했다.

그는 취미로 한국화를 배웠다고 겸손해 하지만 실력은 취미 수준을 뛰어넘었다. 배운지 2년 만에 대한민국회화 대상전에서 입선과 특선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서울미술전람회(입선), 충청미술전람회(특선), 인천미술전람회(입선), 신사임당미술대전 한국화(입선) 등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실적만 줄잡아 10회가 넘는다. 2006년과 2007년에는 개인전 '평강 김현태전' 도 열었다.

방사선사가 그린 한국화, '국전' 도 인정

김현태 부팀장의 권유로 한국화를 시작한 원내직원만 여러명이다. 최태규 기사장(영상의학과), 박성수·이경숙(CT실)·조규은(종합건강검진센터)방사선사 등이 그 주인공. 최태규 기사장은 2008년 봄부터 붓을 잡기 시작해 약 1년여의 짧은 기간동안의 수련으로 '2009년 제7회 아카데미미술대전' 에서 '춘우귀' 를 그려 특선을 차지할 만큼 그림실력이 출중하다는 평가다. 이경숙, 조규은, 박성수 방사선사는 지난해 11월 28일 '2008년도 사단법인 국민예술협회' 가 주최한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한국화 부분』 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경숙 방사선사는 '청풍'으로 입상을 수상했는데, 2004년부터 붓을 잡은 이경숙 방사선사는 3번 전시회 출전에 7차례 수상경력을 자랑한다. 조규은 방사선사도 '천년석' 으로 특선을 차지해 주위로부터 부러움과 놀라움의 대상이 되었고, 한국화 경력 3년의 박성수 방사선사 또한 '춘우귀' 라는 그림을 출전해 입선하기도 했다.

이경숙 방사선사는 "좋아서 그린 그림인데 이렇게 수상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너무 행복하



왼쪽부터 : 박성수 방사선사, 최태규 기사장, 이경숙 방사선사·조규은 방사선사, 김현태 부팀장


다. 한국화는 한번으로 끝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해야 하는 인생의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고객들과 접하며 끊임없이 긴장된 생활을 해야 하는 병원인 들에게는 심신의 수양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다" 고 강조했다.

한편, 영상의학과 안에 한국화의 태동을 이끈 장본인인 김현태 부팀장은 "직장인의 경우 누구나 육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라며 "운동이든 취미생활이든 육체나 정신을 충전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김 부팀장은 직장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1주일에 두 번 정도 퇴근 후 시간을 내서 인사동 화실에 가서 그림을 그린다. 그림 주제는 주로 우리나라 '산' 이다. 북한산, 도봉산 등 자신이 평소 등산하는 산을 담는다. 이처럼 그림은 생활 주변과 밀접해야 한다는 것이 김 부팀장의 생각이다. 영상의학과 한국화가 5인방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대고 궁금해지는 건 왜일까? 이제, 이들만의 작품으로 가득채운 특별전시장에서 그림을 감상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2009 핵심가치 공로자 및 2008 MBO 포상 핵심가치 공로자, 행복경영, 나눔과 봉사 분야 총 4팀 포상




고려대의료원(부총장 오동주)은 지난 6월 23일(화) 고대 구로병원 대강당에서 '2009년 핵심가치 공로자 포상 및 2008년 목표관리(MBO) 시상식' 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의료원 발

전과 직원간의 화합에 공헌한 팀과 직원을 포상함과 동시에 2008년 목표관리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과 부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09년 핵심가치 공로자 포상은 '행복경영' 과 '나눔과 봉사' 두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됐으며 '행복경영' 분야에서는 축구대표팀 동호회와 핵의학과 강용길 방사선사, '나눔과 봉사' 분야에서는 불자회와 안산병원 간호부가 각각 선정되어 상장과 상금을 전달받았다. 이번에 포상을 받은 팀들은 각 분야별로 직원들의 추천을 받은 후, 평가를 통해 선정되었다. '행복경영' 부분에 선정된 축구대표팀 동호회는 활발한 축구 경기 및 훈련을 통해 교직원 친목도모와 체력증진에 힘쓰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심어준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핵의학과 강용길 방사선사는 의료원 원내기자단의 활성화로 교직원간 상호 교류 및 유대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루어졌다. '나눔과 봉사' 부분에 선정된 불자회는 그동안 해외의료봉사, 국내 외국인근로자 및 소외계층 의료봉사 등을 실시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안산병원 간호부 역시 2006년 간호봉사단을 창간한 이후 해마다 약 50회의 원내,외 봉사활동을 실천해온 점을 인정받아 이번에 포상을 받게 됐다. 핵심가치 공로자 포상에 이어진 2008년 목표관리(MBO) 시상에서는 고대 구로병원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장과 우승기를 전달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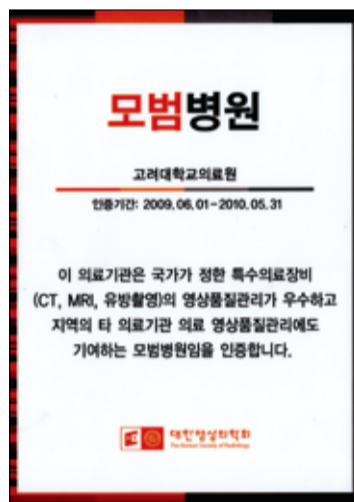
어린 천사를 위한 사랑의 기도




정상의 성악가 교수들이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아 백혈병 환아를 위로하고 치료비를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6월 15일 오전 고려대 안암병원 어린이병동에서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이수연(5세)양에게 특별한 손님들이 찾았다. 주인공들은 바로 음악대학에서 후학들을 지도하며 활발한 연주활동과 함께 자선기금 지원 및 문화지원 사업을 펼쳐온 성악가 교수들로 구성된 '예인교수 앙상블'. 올해 초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힘겹게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수연이의 안까타운 사연을 접한 이 단체는 그동안 자신들의 자선공연으로 조성한 희망기금 중 200만원을 치료비로 선뜻 내놓았다. 병실을 찾아 수연이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예인교수 앙상블 음악감독 나윤규 교수는 "수연이에게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수연이에게 완치를 향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면서, "수연이의 빠른 쾌유를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고 말했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 항상 소외 이웃들을 향한 연주와 노래, 그리고 기도한다는 예인교수 앙상블은 또 다른 사랑과 나눔의 실천으로 고려대 안암병원에 투병중인 환우들을 위해 오는 8월중 병원을 다시 찾아 환우를 위한 특별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 모범병원' 지정




6월 5일 대한영상의학회(회장 김동익)가 인증한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 모범병원」으로 선정됐다. 의료원 산하 안암, 구로, 안산병원은 보건복지부령 제235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가 정한 특수의료장비

인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Mammo(마모, 유방촬영장치) 등의 특수의료장비를 적절히 설치하고 모범적으로 활용해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 모범병원'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3개 병원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공인받게 되었으며, 6월 1일부터 1년간 인근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관리자에 대한 지도, 교육 등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수련병원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받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한편, 고대의료원은 복지부 산하(재)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 의해 해당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왔으며, 3가지 특수의료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해당 의료장비의 질 확보와 중복 촬영에 따른 의료비 부담 등의 폐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상반기 혈액투석교실 개최




신장내과(과장 조원용)는 6월 9일 오전 10시 8층 대회의실에서 혈액투석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강좌에 약 100여명의 혈액투석 환자와 보호자 등이 참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개최한 혈액투석교실에서는 ▲ 칼슘과 인의 조절 ▲ 동맥경화증 ▲ 투석환자의 운동요법 등 일반인들의 혈액투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가 실시됐으며, 강의 후에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한편, 안암병원 인공신장실은 혈액투석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병증을 최소화하기위해 매년 봄, 가을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혈액투석에 대한 강좌를 마련하고 있다. 

5월 이달의 친절직원 선정




안암병원은 6월 12일 오전 8시 40분에 원장실에서 '5월, 이달의 친절직원'을 선정해 포상했다. 친절직원에는 정신과 유해

선 전공의, 내과 중환자실 김영하 간호사, 62병동 권유림 간호사, 정형외과 외래 박정아 간호사 등 4명이 선정됐다. 친절직원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상금(10만원)과 친절직원뱃지가 부상으로 수여됐으며, 안암병원은 원내 친절도 향상을 위해 고객소리함과 온라인 추천 등 고객관리시스템(VOC)을 통해 접수된 만족사례를 종합평가해 최우수자를 매월 선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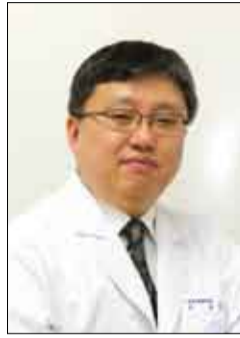
고대 안암병원-국립재활원 협력병원 협약 체결




안암병원과 국립재활원(원장 허용)이 의료계 공동발전과 환자 진료의뢰 등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손창성 병원장, 신경 의무기획처장, 조태형 대외협력실장, 권희규 재활의학과장은 6월 23일 오전 11시 서울 수유동에 위치한 국립재활원을 방문해 협력병원 협약식을 갖고 진료의뢰 환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의학적정보 교환, 임상 및 기초분야 공동연구,

각종 학술대회 및 교육 참여기회 제공, 기술 및 경영정보 교류 등의 본격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키로 했다. 손창성 병원장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국가기관으로서 입체적인 재활의료를 펼치고 있는 국립재활원과 협력관계를 맺게 되어 기쁘다. 보다 실질적이고 폭넓은 교류를 통해 양 기관이 상호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 안암병원은 이번 협약으로 전국 503여개 병의원과의 협력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향후 진료협력 및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병수 교수, Triple Crown 달성




종양혈액내과 김병수 교수가 2009-2010년판 세계 3대 인명 사전에 모 두 등재되는 트리플 크라운(Triple Crown)을 달성함으로써, 탁월한 지성 및 연구업적을 세계적으로 확인받는 영예를 안았다. 김 교수가 등재된 인명사전은 미국에서 발간되는 마르퀴즈 후즈 후 인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와 ABI(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의 21세기의 탁월한 지성(Great Minds of the

21st Century),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발간되는 IBC(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의 ‘21세기 탁월한 2000명의 지식인(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st Century)’ 등이다.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동시에 등재되는 김병수 교수는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재생불량성 빈혈 등 난치성 혈액질환 명의로 널리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200편 이상의 논문 발표와 줄기세포 관련 국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등 학문적으로 매우 우수한 업적을 쌓고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지원으로 미국 WIRB(Western Institutional Review Board)연수 과정을 이수하는 등 의학교육 및 연구윤리 분야에서 도 능력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비뇨기과 고영희 교수팀, ‘최우수 논문 발표상’ 수상




안암병원 비뇨기과 고영희 교수(사진)팀(천준·강석호 교수)이 지난 6월 20일(토) 신촌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제16차 대한비뇨기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연제는 로봇이용 복강경하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 분야’에서 새로이 도입된 술기인 ‘Advanced Hybrid Technique’를 소개하고 그 단기 성적을 밝힌 내용으로, 이 술기는 지난 2007년 7월 비뇨기과 천준 교수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기존의 ‘표준적 Hybrid 술기’를 더

욱 발전시켜 요자제능의 획득(수술 후 요실금의 해소)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전립선암 로봇수술방법이다. 이 술식 역시 금년 3월부터 고려대 안암병원 비뇨기과 천준 교수팀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임상 적용하였고 이번 발표에서 천 교수팀은 자세한 수술방법과 더불어 현재까지의 단기간 추적관찰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고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안암병원 비뇨기과 로봇수술팀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종양조절능 뿐만 아니라 전립선암에 대한 근치적 수술에서 환자에게 있어 가장 큰 심리적 장벽이 되어오던 발기능과 요자제능의 조기회복을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수술 후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양혈액내과-비뇨기과 공동암치료팀, ‘로슈암학술상’ 수상

안암병원 종양혈액내과 및 비뇨기과의 료진이 신장암 냉동수술법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해, 그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암학회가 수여하는 ‘로슈암 학술상’을 수상했다. 지난 6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열린 제35차 대한암학회 학술대회에서 수상한 이번 연구논문의 주제는 ‘신장암에서 국내최초로 시도된 3세대 냉동수술치료의 임상적 우수성’에 관한 논문으로, 지난해 12월에 대한암학회 학술지인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에 게재됐다. 특히, 비뇨기과 강석호 교수가 주관하는 비뇨기냉동수술팀은 신장암에 대한 냉동수술법 개발에 대한 연구로 동아시아 비뇨기과학회에서 최우수발


표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고대의대 교수진의 학술상 수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혈액종양내과 김준석(구로병원), 김영홍 교수가 로슈암학술상과 우수기초 논문상을, 비뇨기과 강석호 교수가 로슈암학술상을 수상했다. 또한, 유방암 진료를 함께하고 있는 유방내분비외과 이은숙/혈액종양내과 박경화 교수팀은 유방암 연구과제로 머크 세로노 암학술 연구비 수혜자로 선정되는 등 고대의대 의료진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각종 학술상을 휩쓸었다. 

고대 신경외과학 교실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성료



명실 공히 대한민국 신경외과학의 산실로 세계적인 임상 및 연구역량을 자랑하는 고려대 의과대학 신경외과학 교실

역사가 반세기를 맞았다. 고려대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주임교수 정용구)이 교실 창립 50주년을 맞아 5월 30일 오전 8시 고려대학교 LG-POSCO 경영관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기념 국제학술대회 (the 50th Anniversary International Symposium of KU Neurosurgery)가 성황리에 마쳤다. 고대의대 신경외과학교실은 1942년 첫 신경외과 수술을 시작한 이래 59년 공식적인 독립된 교실로 현판을 걸고 본격적인 환자 진료 및 수술, 의학교육을 펼쳐왔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100여명의 전문의를 배출하고 수백여편의 논문을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게재하는 등 국내 신경외과학 발전을 선도하며 대한민국 신경외과 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린 일등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50주년을 기념해 열린 국제학술대회는 美 존스홉킨스대의 렌즈 교수의 ‘중추신경계 통증의 최신지견’을 등 국내외 저명한 최고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서 10개의 연제를 발표하는 등 신경외과학의 최신지견 및 경향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교실 및 의학발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학문 교류의 장이 되었다. 특히, 이 날은 오는 9월 영예로운 정년퇴임을 맞는 이훈갑 교수의 이룩한 훌륭한 업적과 학술활동을 기리는 자리도 함께 마련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훈갑 교수는 지난 31년간 교정과 병원을 누비며 소아 신경외과 분야와 뇌혈관 질환의 치료 및 교육분야를 진일보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15초 안에 환자를 감동시켜라”

첫 만남, 짧은 순간 환자는 병원의 친절도 바로 알아

톨스토이가 생전에 자주 했던 세 가지 물음이 있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지?

우리의 대답은 이렇게 될 것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now).

자기 병원을 고객의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형식적인 규칙이나 지시서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회사는 자사를 대표해서 일하는 최일선의 담당자가 15초라는 짧은 시간에 아이디어, 결정,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만약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최일선의 사원이 조직의 지위계통을 거슬러 올라가 결재를 받아야만 한다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 결국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모처럼의 좋은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접점 관리에 의한 고객만족 경영'을 실시한 스칸디나비아항공(SAS)의 DIS 칼슨 사장은 3000만달러(1977년~1980년)의 적자 기업인 SAS를 1년만에 20억달러의 매출과 7100만달러의 흑자를 자랑하는 기업으로 만들어 놓았다.

첫 만남이 바로 '결정의 순간'

위의 사례에서 언급된 '결정의 순간'이란 무엇인가? 바로 첫 만남의 순간이다. 고객과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순간을 가리켜 '고객과의 접점'이라고 한다. 첫 키스가 그렇고 첫날밤이 그렇듯이 고객이 점포를 찾을 때의 기분도 마찬가지다. 전화통화를 할 때도 그렇고, 병원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에 만나게 되는 안내 데스크, 접수창구, 건강정보 책자 진열대, 의료진과 직원들 모두 고객에게는 첫 만남의 대상들이다. 그 순간은 15초보다도 짧다. 실제로 고객은 15초보다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의 시스템 혹은 일하는 방식과 태도를 간파해 버린다. 마치 마주 대하자마자 첫눈에 상대방을 평가해버리는 처녀 충각들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접점 관리에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고객이 들어와서 서비스를 받고 나가는 전 과정을 그려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대응 태도·행동 목표 설정부터

각각의 접점에 대한 대응태도 및 행동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화는 반드시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는다. 전화를 받을 때는 상냥하고 씩씩한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00부서 000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한다. 이러

한 표준은 명확성, 간결성, 관찰 가능성, 현실성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설정된 행동목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습관으로 자리잡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오랜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싸움이므로 여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세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한 번 회귀한 습관을 다시 바꾸기란 정말 어렵다. 어려울수록 기분을 지키지는 말과 함께 경영의 중심은 반드시 고객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려대 안암병원이 고객만족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결정의 순간 즉 고객과의 첫 만남에서 15초 안에 환자를 감동시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글 | 친절리더 오명옥
수간호사(53병동)

동호회 탐방

움직이는 동호회 행복경영을 담다!

신바람은 우리가 일으킨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의 신바람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로도 동호회의 뜨거운 열정을 따라 잡지 못한다. 신바람나는 일터를 조성하고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직원들은 레저, 스포츠, 종교활동 등 다양한 동호회가 조직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사내 동호회는 새로운 조직 문화를 창출하고 즐겁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및 조직간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하고 고대의료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동호회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의료원 동호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교직원포탈을 통해 동호회의 초창기 양적팽창에 머물렀던 활동은 최근 질적 향상까지 이루어 서서히 자신만의 고유영역을 확장해 가는 중이다. 이런 배경은 최근 화합과 융화 그리고 가치실현의 행복경영을 위한 CEO 들의 적극 지원이 따르기 때문이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창립지원금, 활동지원금, 특별지원금

으로 구분 동호회 활동에 따라 적극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금은 회원수와 활동 공헌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동호회를 통한 의료원 및 초청 행사 개최는 행사비 100% 지원한다. 현재 교직원 포탈사이트의 동호회 운영현황을 보면, 커뮤니티에 등록된 동호회는 총 116개로 레저/스포츠/종교동호회 43개, 위원회/TFT 30개, 노하우/직무개선 43개로 분류 되어 일반 스포츠에서 전문적인 성격에 이르기 까지 점차 다양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처럼 포탈을 중심으로 오프라인의 활발한 활동을 통한 교직원 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더불어 의료원의 이미지 가치 상승 및 사회봉사의 큰 역할의 중심에 있다. 심신의 안정을 위한 요가, 레저에서 나눔의 봉사까지 오프라인의 연속적이다.

앞으로도 동호회 활동을 통한 개인/부서 간 Communication 활성화, 자기개발욕구충족, 조직만족도 증가, 유연한 노사관계정립과 구성원간의 친밀도 증가, 부서간 충돌방지, 직원간의 신뢰형성, 업무 효율성의 증대를 기대해보며 의료원 교직원의 복지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활력소가 될 것이다.

의료원(부총장 오동주)는 지난 6월 23일(화) 고대 구로병원 대강당에서 '2009년 핵심가치 공로자 포상 및 2008년 목표관리(MBO) 시상식'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의료원 발전과 직원간의 화합에 공헌한 팀과 직원을 포상함과 동시에 2008년 목표관리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과 부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6월 23일 실시한 의료원 '2009 핵심가치 공로자 및 2008 MBO 포상'에서도 핵심가치 공로자 대다수가 동호회나 주축 멤버가 대다수였다. 2009년 핵심가치 공로자 포상은 '행복경영' 부분에 선정된 축구대표팀 동호회가 활발한 축구 경기 및 훈련을 통해 교직원 친목도모와 체력증진에 힘쓰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심어준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핵의학과 강용길 방사선사는 의료원 원내기자단을 활성화로 교직원간 상호 교류 및 유대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루어졌다. 

도움말 | 원내기자 조규은 (종합건강진단센터) 방사선사
choke0909@hanmail.net

분류	카페명	분류	카페명	분류	카페명	분류	카페명
KLC	KLC 고대의료원 레저동호회	의료	안암병원 학술포럼	농구	베스트 원 볼링 클럽	농구	GunNRun
사진	사진영상동아리KMP	요가	안암 요가 동호회	육상	달리기	육상	Maraton KUMC
테니스	고대의료원 직원테니스회	봉사	고대의료원 나눔과 봉사	수영	수영사랑회	수영	수영사랑회
산악	고려대학교 의료원 산악회	종교	고대의료원 불자회	스키	알래스키	스키	알래스키
	고대병원 MTB 두동글	야구	고대의료원 야구 동호회	기타	I love sports 외 15동호회	기타	I love sports 외 15동호회
기자단	안암 원내기자	볼링	안암병원 베스트원 볼링 클럽				
뉴스	금린어의 흐르는 강	어학	KUMC 일본어 동호회				



보리밥과 다이어트 혈당낮추고 체중줄여

어떤 음식이 비만을 예방하고 혈당조절에 좋은 것일까? 과연 패스트푸드나 우리가 흔히 먹는 중국음식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고려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고시 준비생 8명을 대상으로 4일간 동일한 칼로리의 쌀밥·보리밥·자장면·햄버거를 아침식사로 먹게 한 후, 혈당변화를 비교했다. 실험 결과, 자장면을 먹은 뒤에는 혈당이 가



장 높게 올라갔다. 하지만 자장면을 먹은 뒤 4시간이 지나면 혈당 수치가 식전 공복혈당(평균 83.6mg/dL)보다 낮은 71.8mg/dL까지 내려가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배가 빨리 고프다"는 속설이 입증됐다. 자장면에 이어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은 햄버거→쌀밥→쌀+보리밥 순으로, 쌀과 보리밥이 혈당조절에 유일했다.

자장면·햄버거 등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단순 당으로 구성돼 있는 탓에 식후 혈당이 급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혈당을 낮추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인슐린이 분비됐다. 이 때문에 식 후 4시간이 지나면 혈당이 푹 떨어지는 패턴을 보였다. 쌀과 보리쌀을 섞은 밥은 혈당이 가장 적게 올랐을 뿐 아니라, 혈당 변화도 크지 않고 오랫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형태를 나타냈다.

햄버거와 자장면을 먹었을 때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졌지만 쌀+보리밥을 먹은 뒤에는 중성지방이 오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려간 경우도 있었다. 쌀과 보리는 햄버거나 자장면보다 지방의 양이 적고 특히 보리에 함유된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혈중 지질수치와 혈당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밥을 할 때 보리를 30%만 섞어도 이런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

이 실험에 이어 두달동안 보리 혼식을 꾸준히 섭취한 결과, 보리식이군의 평균체중이 64.9kg에서 63.7kg로 1.2kg 감소했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모두 낮은 수치를 유지했다. 최근 패스트푸드 섭취가 급증해 비만·당뇨병·고지혈증 등이 증가하고 있다. 전통 식사법인 여러 가지 곡물을 섞은 밥 중심의 식사가 생활습관병 예방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 가정의학과 조경환 교수
외래 | (02) 920-5104

환자의 눈높이로 감동을 전한다! 이달의 베스트 친절직원!! 정형외과 외래 박정아 간호사



왼쪽에서 3번째, 박정아 간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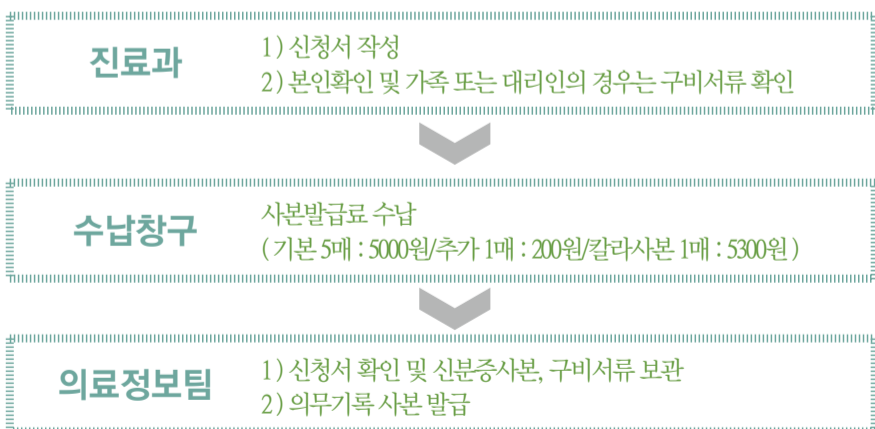
안암병원은 지난 6월 12일 오전 8시 40분에 원장실에서 '이달의 친절직원'을 선정해 포상했다. 이달의 친절직원에는 정형외과 외래 박정아 간호사를 포함한 4명의 교직원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고객소리함과 온라인 추천 등 고객관리시스템(VOC)를 통해 접수된 만족사례를 종합평가해 최우수자를 매월 선정하기 때문에 환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직원이 수상하고 있다. 박정아 간호사는 정형외과 외래 환자를 감동시킨 주인공이다.

정형외과 외래를 방문한 한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는 어려운 의학용어를 빠르게 설명해서 알아듣기 힘든 경우가 많았는데, 박정아 간호사님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친절히 설명해주었다. 항상 밝고 환한 표정으로 친절히 안내해주는 박정아 간호사님의 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고대안암병원과 아웃백 동묘역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병원생활팁

의무기록의 보관 및 사본발급



먼저 의무기록이란 진료와 관련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진료를 담당한 모든 사람이 기록한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의무기록은 입·퇴원기록지, 퇴원 요약지, 병력 및 의학적 소견 기록지, 경과 기록, 수술 기록지, 마취 및 회복 기록지,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사 지시 기록지, 간호기록지, 응급실 기록지, 외래 기록지 등이 있다.

민간보험 및 개인의 알권리가 증가되면서 의무기록 사본 발급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의무기록 관리에 있어서도 과거 보관의 개념에서 사생활 보호(privacy)와 비밀 보호(confidentiality)라는 새로운 개념의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은 법률에 근거

한 의무기록 관리 지침에 따라 의무기록의 보관 및 접근을 관리하고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시행규칙 제 18조에 근거하여 진료기록 및 수술기록은 10년, 그 외 검사소견 및 간호기록 등은 5년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고대안암병원은 2004년 3월부터 영상 EMR 시스템을 도입하여 의무기록으로 작성된 기록을 스캔하여 전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스캔된 의무기록은 영구 보관 되고 있다. 스캔 후 종이 기록은 법적보관 연한이 지나면 완전 폐기하여 환자의 개인정보 누출을 최소화 하고 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시 준비사항

- 1)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확인
- 2) 가족인 경우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준비
- 3)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확인

이는 의무기록이 보험회사 및 기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되면서 사회, 경제적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 본인의 동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단순한 서류의 복사가 아니라, 진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이라고 생각해보면 사본발급절차가 결코 복잡한 절차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병원에서는 환자의 정보 보안, 비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병원 홈페이지 <http://anam.kumc.or.kr/index.jsp> 증명서 발급 중 "의무기록사본"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글 | 의료정보팀 최지연 의무기록사

